

#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발견...구조 속도

### 무너진 잔해물로 건물 내부 진입로 확보 관건 현산, 크레인 해체 장비 반입...조립 이틀 소요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1명이 발견되면서 구조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도로 주변에 매몰된 잔해물로 건물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종자 구조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1시 14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했다.

당국은 전남에도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육안으로 수색했으나, 이날 오전 콘크리트 잔해를 치워가며 장비를 동원해 한 층씩 정밀 수색을 하다가 남성을 발견했다.

특히 이 남성은 앞서 실종된 작업자 6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구조대원 85명과 인명구조조끼 10마리 등을 동원해 다른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

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들은 붕괴한 건물의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6~28층은 전남 구조견들이 수색 중 특이 반응을 보였던 곳으로 바닥판(슬라브)이 층층이 무너져 쌓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드론은 물론 음향 탐지기, 열화상 장비,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했다. 또, 당국은 지상 1층 외부에 쌓여있는 잔재물을 무인 굴삭기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치우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곳은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실종자들이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구역이다. 현재 소방당국은 흙더미에 매몰된 요구조자의 생사를 확인 중이며, 철선과 콘크리트 등 적치물을 치우는 대로 요구조자를 구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종자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을 막아내기 위한 구조물 설치도 일부 이뤄졌다.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 현



광주시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지 사흘째인 13일 오후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생사확인 작업이 어려운 실종자 1명을 발견, 소방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생훈 기자

대산업개발도 사고 현장의 추가 붕괴를 막고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해체와 외벽 안전관리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1,200t(톤) 규모의 해체 크레인 부품을 현장에 반입해 사고 동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상부(23층 이상)를 부분적으로 해체할 계획이다. 크레인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반입되기 시작해 다음날 오후 조립에 나설 예정이며, 조립하는 데만 이틀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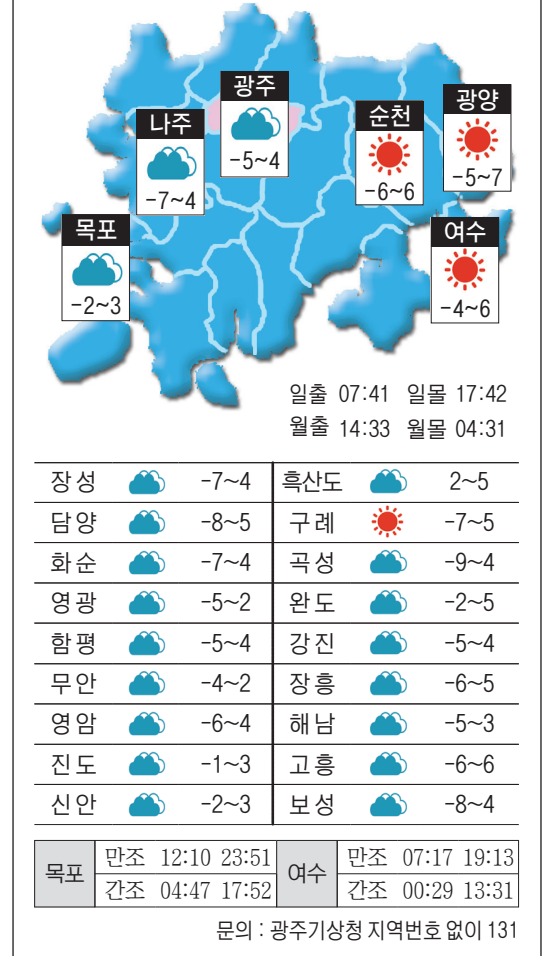
타워크레인 상부를 해체한 뒤에는 아직 건물에 붙어 있는 '강폼'(Gangform·거푸집) 일부와 붕괴 잔존물도 함께 제거해 낙하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도 방지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옹벽 내 기둥 2곳과 건설구조물 등이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사계 등을 설치해 외벽의 안전성을 수시로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벽은 기존의 내부 구조물에 철재 구조물을 연결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 오늘의 날씨



### 현산, 중대재해법 적용 어려워

광주 서구 화정동 중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렵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철거 시 건축물 관리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시행이 1년간 유예돼 사고 상황과 별개로 HDC현산과 경영진은 해당 법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일은 이달 27일이다.

이번 사고가 시행일 이후에 일어났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HDC현산의 처벌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승현 기자

## 경찰·고용부 하청업체 수사 본격화

### 콘크리트 업체 3곳 압수수색...골조업체 현장소장 입건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공사를 진행한 하청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오후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업체 3곳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직접 공사를 시공한 업체와 장비·자재 등을 공급한 업체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 3곳은 모두 불법 재하도급이 아닌 합법적으로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로 현재

까지는 파악되고 있으나, 정확한 계약 관계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설 내부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우선 실시하려고 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 안전상 우려 탓에 현장 진입이 제한돼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또 현산 현장소장과 직원, 갑리 2명, 타워크레인 기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부상자 등을 조사해 진술을 받았다.

현재 입건자는 시공사인 현장소장 A씨(49)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향후 수색 결과에 따라 인명피해가 늘어나거나 추가 과실 등이 밝혀지면 혐의는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광주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본부를 구성,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가능한 곳부터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며 "현장 진입이 가능하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의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거푸집서 '두둑'...붕괴 직전 영상 발견

### 타설 작업 상황 찍혀...사고원인 규명 열쇠될 지 주목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직전 상황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아이파크 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업체 관계자는 언론에 직전 상황이 찍힌 총 2분 10초가량의 2개의 동영상 공개했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외벽 붕괴가 발생하기 10여분 전인 오후 3시 35분 전후에 현장 작업자가 찍은 영상이다.

현장 상황을 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외국인 작업자들이 최상층 39층 바닥에 설치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찍혀있다.

영상 중에는 콘크리트 무게가 더해지는 거푸집이 '두둑' 하는 소리를 내고, 위로 들리는 장면이 1초가량 찍혔다.

작업자들은 사투리가 심한 중국어와 한국어 섞여가며 다급하게 "저기 무너졌다", "거기도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넓은 면적으로 바닥에 타설되는 콘크리트가 가운데로 움푹 팬 듯한 장면도 전반적으로 찍혀 이상 징후가 붕괴 직전부터 천천히 진행됐음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사고 10여 분 전 공사 상황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 가족들 "수색중 다른 희생 원치 않아"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이 무리한 공정으로 인한 인재 의혹을 제기했다.

실종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안정호씨(45)는 13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에서 "보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어느 정도 층고가 올라가면 소방설비와 창호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5층을 지으면 서부터 스프링클러와 창호 작업을 함께 했다"고 빠른 공정을 지적했다.

안씨는 "빨리 가족을 구조하고 생사를 확인하고 싶지만, 수색 대원들이 희생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방당국의 수색 방식에 동의할 것이다. 추가 희생 방지를 우선으로 하되 구조에 애를 써달라"고 호소했다.

/홍승현 기자

## 상무지구 FUNIS

#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 3F\_SCREEN GOLF

폼격능은 광주 최고 수준의 FUNIS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2실과 부대시설

#### 2F\_SCREEN GOLF

폼격능은 광주 최고 수준의 FUNIS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1실과 부대시설

####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 FUNIS

##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화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